

알기쉬운 '해양안전' 가이드

바다와 강 등 시원한 자연을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이다. 특히 국내 연안의 크고작은 많은 섬여행을 떠나는 이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을 국제 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이들, 더 멀리 크루즈선 여행을 선택한 이들, 다양한 크기의 배를 이용해 여름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휴가지를 찾는 이들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보다 '안전하게' 바다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해양안전' 가이드를 소개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안전한 바다여행-알기쉬운 해양안전 가이드북'의 내용중 △승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선박이 좌초, 침몰할 때 △긴급신고 전화 등 선박사고 발생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KST와 협의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승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선박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한 가운데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위기 발생의 감지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알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내방송을 듣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큰 소리가 나거나 폭발음, 강한 충격을 느꼈을 때



• 원인을 알 수 없는 탄 냄새가 났을 때



• 선박이 갑작스럽게 기울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 갑작스런 정전이나 엔진이 멈춘 뒤 오랫동안 안내방송이 없을 때

▶ 비상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통로, 계단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협력하여 대피하도록 하고 반드시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도록 합니다.



- 구명조끼 착용 전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옷은 모두 입습니다.
-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휴대전화를 꼭 소지합니다.



- 배가 급격히 기울 경우 캐비닛, 탁자 등의 미끄러짐이나 낙하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고정된 물건을 꼭 잡아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복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큰 소리로 알립니다.



- 자의적인 판단이나 선불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폐쇄된 장소에 갇혔을 때는 119(또는 122)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2 선박이 좌초, 침몰할 때

선박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기타 원인으로 좌초, 침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 발생

- 위험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승무원에게 신고하거나 119(또는 122)에 신고합니다.

-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② 퇴선 방송

- 퇴선을 할 상황에 처하면 퇴선 신호와 함께 퇴선 방송이 실시됩니다.
-방송 : "총원 퇴선"(3회) "퇴선 부서 배치 붙어!"
-신호 : - - - - - (단음 7회 장음 1회)
- 승객은 승무원 지시와 퇴선 안내방송을 따릅니다.

④ 집합 장소로 이동

-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객실에서 나와 집합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때 서두르지 말고 질서 있게 이동해야 합니다.

③ 퇴선 준비

- 신체의 보온을 위해 가지고 온 옷을 모두 입습니다.

⑤ 비상집합장소

- 객실-탈출 통로-계단을 통해 비상집합장소 표시가 있는 곳에 모입니다.
- 비상집합장소로 모일 때는 대피하는 승객을 막거나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름테마기획 | 알기쉬운 '해양안전' 가이드



비상집합장소

- 집합 장소는 퇴선을 위해 승객들이 모이는 장소로 주로 갑판에 모입니다.
영어로는 "Muster Station"이라고 합니다.

⑥ 구명뗏목, 구명정 탑승

- 비상집합장소에 모이면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구명뗏목일 경우 사다리나 그물 등을 이용하여 구명뗏목에 탑승해야 하며, 구명정일 경우 줄을

- 서서 순서대로 탑승합니다.
- 구명정에 탑승 시 반드시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태웁니다.

⑦ 입수

- 구명뗏목이나 구명정에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선박이 가장 안전한 구명정임을 인식하고 외부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되, 마지막 순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 입수 시 자세



① 왼손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② 오른손으로 왼팔을 누르고 구명조끼 오른쪽 깃 부분을 잡습니다.



③ 바다 표면의 장애물 유무를 확인합니다.



④ 시선은 정면 또는 고개를 조금 들고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듯이 가볍게 뛰고 다리를 모읍니다.

※동절기 바다 익사사고 발생 시 저체온증 유의
동절기에는 해수 온도가 저온이므로 해상 탈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하게 탈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온복과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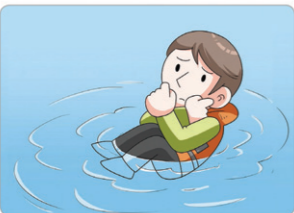
〈특수복(방수복)을 입지 않은 채 물에 빠진 경우 생존시간〉

| 해수온도 | 예상생존시간 | 해수온도 | 예상생존시간 |
|----------|---------|-----------|---------|
| 2°C 미만 | 45분 | 10 ~ 15°C | 6시간 미만 |
| 2 ~ 4°C | 1시간 30분 | 15 ~ 20°C | 12시간 미만 |
| 4 ~ 10°C | 3시간 미만 | 20°C 초과 | 피로에 좌우 |

출처 : 국제 항공 · 해상 수색구조 편람

▶ 입수 후 물속에서의 자세

구명뗏목이나 구명정에 타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있을 때는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체온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물속에서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열 손실을 줄입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팔로 옆사람의 구명조끼를 끼안습니다. (보온 효과와 함께 생존 의지 상승 효과)

3 긴급신고전화 119(또는 122)

119(또는 122)는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하는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 바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119(또는 122)에 신고합니다. 신고내용은 인근 해양 경비안전서의 경비함정과 구조대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하게 출동 · 구조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바다에서 긴급전화 119(또는 122) 신고요령〉

| 사고시간 및 종류 | 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 오전 9시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
| 사고장소 | ② 선박의 위치를 알립니다. 예) 인천에서 오전 8시에 출항했습니다. |
| 선박정보 | ③ 선박의 이름을 알립니다. 예) 바다호입니다. |
| 사고내용 | ④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예) 승객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
| 신고자 정보 | ⑤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고, 긴급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4 물놀이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튜브나 공 등 물놀이 용품은 구조 용품이 아닙니다. 물놀이 용품을 과신하여 깊은 곳에 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해변에서는 자외선이 강해 물놀이를 하다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 해변 바닥에는 돌이나 유리조각, 조개류 등 발바닥을 다치게 할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한 시간 물놀이를 한 뒤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 중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늘에서 수건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적당한 음료수나 소량의 간식을 먹어도 좋습니다.
- 과도한 음식 섭취는 오히려 물놀이에 좋지 않습니다.
- 몸이 춥거나 소름이 돋으면 즉시 수영을 멈추고 휴식을 취합니다.
- 해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중 음주와 고성방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모험심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외딴곳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자제합니다.

-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웁니다. 바다에 마구 버린 쓰레기로 본인이 다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어린이와 항상 동행 하도록 합니다.

▶ 물놀이 사고 시 대처 방법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의 무모한 행동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조요원을 기다리며 전화를 통해 구조요원의 지시를 받습니다.

▶ 물놀이 중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을 때

- 물 밖으로 나온 뒤에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한 뒤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 수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너무 오래 수영을 하지 않으며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급할 땀 망설이지 말고 가급적 최대한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해양**

해운, 브렉시트 영향 ‘있다? 없다?’

(Brexit)

국내 해운업 영향 제한적, 향후 2년 지켜봐야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보호무역 확산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해운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운업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각 분석기관마다 전망은 다르지만 실제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까지는 2년의 협상기간이 있으므로 브렉시트가 확정되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강미주(komares@chol.com)

영국이 지난 6월 23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일이다.

영국은 앞으로 ‘Article 50’을 발동하여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 등 2년간의 탈퇴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Article 50’은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EU 조약 중 하나로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Article 50’을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탈퇴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영국의 테리 메이사 총리는 연내에 Article 50을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밝힘에 따라 영국과 EU의 탈퇴협상은 내년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는 영국은 EU 회원국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계 시장의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브렉시트가 전 세계 해운산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EU 탈퇴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기 보다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로펌회사 ‘Watson Farley & Williams(WFW)’는 “브렉시트 투표 결정만으로는 EU와 영국간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 해운업에 적용되는 법률 및 계약, 무역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도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 세계 및 영국-EU 간 교역량 감소가 예상되며, 환율과 원자재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브렉시트, 무역성장 위축...해운 부담 가중 우려

브렉시트가 향후 현실화되면 전 세계 무역성장을 위축시켜 해운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스 선박브로커 ‘Allid Shipbroking’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시장은 2년간 요동을 치고, 세계 무역성장이 침체할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영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또한 소비와 원자재 수요 위축 등 상당한 경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았다.

IMF는 7월 1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전 세계 경제에 하락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3.2%에서 3.1%로 낮췄으며 영국의 예상 성장률은 올해 1.9%에서 1.7%로, 내년엔 2.2%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정보업체 ‘Xeneta’는 “지난 40여년간 메가

트레이딩 블록의 일부였던 영국이 EU 탈퇴로 새로운 무역협상을 다른 국가들과 체결해야 한다면 컨테이너 선사, 화주, 포워더들에게도 비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영국 해운회의소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자유무역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이다. 영국 해운회의소는 영국이 섬나라이고 해운업이 전 세계 수출입 교역의 95%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 위원회를 설립해 각국과 자유무역 거래를 확대하고 해운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EU 역내 자유무역이 축소되어 해운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영 해운인력 유출, 해운 중심지 ‘흔들’

브렉시트는 특히 영국 해운업에 치명적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국 해운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는 글로벌 해운 금융 및 브로커링, 보험의 중심지로서 영국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영국 기반 글로벌 회계감사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영국의 해운업은 자국 경제에서 65억달러를 차지하며 이중 해외수입이 80%다. 영국 해운보험회사 마리타임런던(Maritime London)에 따르면, 영국 해운업은 46만 9,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사는 지난해 380억달러의 프리미엄을 처리했다. 또한 로얄뱅크 스코틀랜드 PLC 등 최대 해운금융업체들과 클락슨 PLC를 비롯한 해운 브로커들, 노튼 로즈 폴브라이트 LLP 등 선도적인 해운법률회사들이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은 해운 중심지로서 선박금융과 선박보험 및 단기간 용선계약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으로 많은 해외선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은행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에 대